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광양 원도심 걷는 뚜벅이 여행 즐겨요”

시, 예술창고·인서리공원 등 골목 거니는 시간 운영
역사문화관·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특별전시도

광양시가 광양의 젖줄인 서천에 향긋한 장미가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5월 걸어서 즐기는 원도심 뚜벅이 여행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예술창고와 인서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뚜벅뚜벅 골목을 걸으며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광양예술창고와 인서리공원은 오랜 시간이 주는 시간과 기억의 향기를, 광양역사문화관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근대역사 공간에서는 특별한 전시와 공연을 제공한다.

광양예술창고는 60년 된 폐창고를 재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 영상실, 이경모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A’, 소통 공간이자 문화쉼터인 ‘소교동B’가 있다.

천장의 트러스 구조를 노출해 개방감과 편안함을 주는 광양예술창고는 새하얀 벽에 심플하고 감각적인 조형물을 입혀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은 방문객들의 동선을 확장한다.

14채 낡은 한옥을 재생한 인서리공원은 전시공간, 스테이, 카페, 아트샵 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독특한 감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베뉴이자 MZ세대들의 성지다.

안온한 북카페, 아트숍 ‘아트앤에디션’, 빈 차고를 변모시킨 예술공간 ‘01’, 창고를 개조한 ‘반창고’ 등은 뚜벅이 여행자를 환대하는 문턱 없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다.

광양역사문화관(등록문화재 제444호)은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성 및 장소성을 두루 지닌 광양군청사를 재생한 곳으로 광양의 켜를 층층이 담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광양의 역사, 광양 4대 산성, 근대건축물 등 광양의 문화와 인물 등을 파노라마로 살펴볼 수 있으며 명절 등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된다.

역사문화관 내 기획전시실에서는 한지의 우수한 물성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야생화 시리즈를 선보이는 이인선 개인전 ‘자연을 담은 한지 꽃’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 직원 관사로 당시 일본 주택의 독특한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상반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밝은볕 아트살롱’이 열리고 있으며, 영화감독과 대화하고 OST를 청취할 수 있는 ‘토크&공연’ 순서가 마련돼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의 원도심은 오래된 시간이 축적된 공간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자연스레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 가득한 카페에서 사색까지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행안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방문…6건 273억 지원 요청

함평군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익 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총사업비 1188억원의 6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273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군은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신규 사업에 연차적 국비 투입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사업은 손불면 대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총사업비 468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2단계 사업(386억원), 해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126억원) 등 수자원 기반 정비와 재해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예산 확보는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최일균 기자

고흥, ‘귀농귀촌·외국인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지정

고흥군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와 정착 지원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인구유입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생활정보, 사회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착지원 제도다. 고흥군은 이 프로그램을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인구 유입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총 7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고흥군에는 누적 1만 919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됐고, 고흥군이 ‘전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지역학습관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인구 회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다양한 이민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여수 묘도동 도독마을 방파제 벽화로 변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진린 도독 전투 재현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의 방파제가 벽화로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도독마을은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수군을 이끌고 조선 수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운 진린 도독 장군이 진을 친 곳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전의 배경이 됐던 이 마을 방파제가 벽화로 변신한 것.

마을 이름도 ‘도독’이라는 진린의 직함에서 비롯됐다.

묘도동은 도독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근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지난 4월부터 벽화작업을 기획했다. 벽화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연합해서 왜군과 싸우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됐다.

묘도동은 이번 벽화가 볼거리 제공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LOCAL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구례읍·문척·광의면 3곳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구례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교육·지역사회·공공기관 등 5개 분야, 22개 기관(단체)과 함께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구례읍·문척면·광의면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자살위험이 있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은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가지 활동 중 2가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자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대와 돌봄이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이라며 “이번 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실천 범위를 넓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해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

장성 산사태 발생 취약지 점검
52곳…24시간 상황관리체계

장성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52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성군 산림편백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조치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대피소 운영 상황, 안내표지판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도 확립했다.

군은 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대피 조력자를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통한 상황전파도 실시한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가동한다.

김한종 군수는 “올 여름 큰 비가 예보된 만큼, 빈틈없는 산사태 예방, 대응책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